

■ 괴운(魏雲) 칼럼



노자(老子) 도덕경과 현대인의 12도(道)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야공파 36세)

얼마 전 중국 튀강(羅強)이 짓고 신상현이 옮긴 <소설로 읽는 도덕경>이란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오늘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과 최근 인터넷에 화자(翕友)되고 있는 현대인의 12도(道)에 대해서 알아본다.

도덕경은 2500년 전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 노자(기원전 571~471)가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고대의 우주, 자연 생명 및 인류사회에 대한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어 과학사상과 동양적 지혜가 잘 어우러진 고전(古典)이다. 그러나 노자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볼 수 없고, 여러 차례 걸쳐 편집된 흔적이 있고, 오랜 변형 과정을 거쳐 4세기경 지금 형태로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여러 판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 하상공(河上公)이 주석한 하상공본과, 위(魏)나라 왕필(王弼)이 주석했다는 왕필본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전문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둔황(敦煌)에서 발견된 당사본(唐寫本)과 육조인사본(六朝人寫本)이 있고, 여러 곳에 도덕경 비(道德經碑)가 흩어져 있어 노자의 경문을 살펴보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근년에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의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백서노자(帛書老子)와 색담사본 도덕경(索寫本道德經)은 도덕경의 옛 형태를 엿볼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그리고 원래 도덕경은 상·하로만 나누어졌을 뿐인데 장구지학(章句之學)이 성행한 한대(漢代)에 와서 장·절로 나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자는 상편 37장, 하편 44장 총 81장으로 5,000여 자로 되어있으며, 상편 내용은 도경(道經), 하편 내용은 덕경(德經)이라고 한다. 노자가 말한 도(道)는 사물이 운동하거나 변화하는 데 따라야 하는 보편적 규칙 또는 만물의 본체이며, 덕(德)은 도로부터 얻은 특수한 규칙 또는 성질(개인적 수양)로 보고 있다. 여기서 기술되고 있는 사상은 도(道)의 본질과 현상계의 생활하는 철학이다. 도(道)는 만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지 않고, 만물을 성장시키나 공(功)을 내세우지 않는다(10장). 도는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55장). 이것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자연계를 지배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노자가 보인 인

생관은 “유약한 자는 생(生)의 도(道)이다(76장). 유약은 강강(剛強)에 승하며(36장), 상선(上善)은 물과 같다. 물은 흘러서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때문에 도에 가깝다(8장). 등으로 보아 나를 내 세우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과 함께 사는 일은 권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는 일(一)을 생하고, 일은 이(二)를 생하고, 이는 삼(三)을 생하고, 삼은 만물을 생한다.”(42장). 식의 일원론적인 우주 생성론을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의 도덕관은 예(禮)를 기본으로 하고 인(仁)을 최고 경지와 핵심으로 보지만, 노자의 도덕경은 자연을 기본으로 한다.

다음은 최근 인터넷에 나오는 현대인의 12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1도는 언도(言道)로 나이 들면 말의 수(數)는 줄고, 소리는 낮추어야 한다. 제2도는 행도(行道)로 행동을 느리게 하되 행실(行實)은 신중해야 한다. 제3도는 금도(禁道)로 탐욕(貪慾)을 금하라. 욕심이 크면 사람이 작아 보인다. 제4도는 식도(食道)로 먹는 것도 가려서 잘 먹어야 한다. 제5도는 법도(法道)로 삶에 규모(規模)를 갖추는 것이 풍요로운 삶보다 진실하다. 제6도는 예도(禮道)이다. 나이 든 사람도 젊은이에게 갖추어야 할 예절(禮節)이 있다. 대접받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제7도는 낙도(樂道)이다. 삶을 즐기는 것은 욕망을 채우는 것에 있지 않다. 간결한 삶에 낙(樂)이 있다. 제8도는 절도(節道)이다. 나이가 들어 아름다움을 잃는 것은 아니다. 절제(節制)하는 삶에 아름다움이 있다. 제9도는 심도(心道)로 인생의 결실은 마음가짐에서 나타난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넓어 보인다. 제10도는 인도(忍道)로 나이가 들어가면 인내(忍耐)가 필요하다. 참지 못하면 망령(妄靈)이 된다. 제11도는 학도(學道)로 연륜이 쌓이면 경량이 풍부하고 터득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배울 것은 더 많다. 제12도는 기도(棄道)이다. 손에 잡고 있던 것들을 언제 놓아야 하는지 이것이 나이 들며 배워야 할 마지막 도(道)이다. 결론적으로 도와 덕의 최고 준칙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차체에 우리 안동 권문들도 살아가면서 노자의 도덕경과 현대인의 12도를 음미(吟味)해 봅시다.

아들이 쓰는 아버지 자서전
아버지의 시간

자서전은 보통 일생을 돌아보며 본인이 쓴다. 그런데 여기 아들 권용준(국제로터리 3750 지구 총재)이 아버지의 인생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일대기를 쓴 자서전이 출간됐다. 아버지의 어린시절부터 학창시절, 아버지의 미소, 말소리, 걸음걸이, 눈물 등 그 모든 것을 말이죠. 그 아버지는 추밀공파 선계(善系) 20대 종손인 권순팔(權純八, 1934년생) 였다. 아버지의 학창시절은 절박함과 끈기로 엮인 긴 터널 같았습니다. 매 순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셨다. 일터에서는 아버지께서 걸어오신 길은 단순히 일이라기보다 사명에 가까운 여정이었습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직업을 살아낸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에서 가장 가파른 언덕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쟁과 이별, 그리고 책임이 교차하는 시기였을 것이 라고 기억하며, 그것이 아버지의 삶이었다고 아들은 기억합니

다. 아버지는 언제나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는 하나의 기준이자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이야기보다 그 사 이사이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다고 솔회합니다.

그래서 그렇까. 아들은 아버지의 삶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책 끝부분에 나의 아버지 권순팔 선생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읽고 나니 가슴이 찡합니다. 아들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에게 보내는 절절한 사부곡입니다. 울림이 큼니다.



권영환 편집국장

■ 권순공의 온고지신溫故知新

‘돈키호테(Don Quixote)’를 위한 변명



권순공(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1605년 세상에 처음 나온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547~1616)의 소설 『돈키호테(Don Quixote)』는 정말 재미있다. 그 재미는 아마도 우리의 돈키호테와 그의 시종 산초 판사(Sancho Panza)가 벌이는 기이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모험담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풍성한 이야기의 향연 때문이라. 시작도 끝도 없이 어디를 펼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 작품이 세계문학사에서 최초의 근대소설이며 100인의 세계 유명 작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소설이라는 찬사가 결코 허황되지 않아 보인다. 해서 흔히 앞뒤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인물을 ‘돈키호테’라 부르기도 하지 않는다.

『황금시대』의 물력과 ‘기사소설’에 대한 풍자

라만차(La Mancha)의 어느 마을에 이웃 사람들이 ‘착한 알론소 키하노’라 부르는 50살에 든 시골귀족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 철 지난 ‘기사소설’을 탐독하던 키하노는 그 이야기들을 현실로 받아들여 자신도 전설의 기사인 ‘아마디스 데 가울라’를 본받아 편력기사가 되겠다고 했다. 거기까지는 상상력이 조금 지나쳐 그렇다고 해도, 이 양반이 진짜로 자신을 기사식으로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 부르고 증조부님들이 쓰던 낡은 갑옷과 무기를 손질하더니 아원 말에게 ‘로시난테’라는 이름도 지어 주고, 드디어 편력기사로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길을 떠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구원의 여인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마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을 근처 사는 농부 로렌소의 딸 알론사를 구원의 여인으로 삼아 ‘돌시네아 델 토보소(Dulcinea del Toboso) 공주’라 부르기로 했다.

준비를 마친 돈키호테는 드디어 편력기사로의 모험을 떠나게 됐는데, 마침 라만차의 어느 주막에 이르러 그곳을 성(城)으로, 주막 주인을 성주라 여겨 어처구니없는 편력기사의 임명식을 거행하기에 이른다. 드디어 편력기사가 됐다고 착각한 돈키호테는 길에서 만난 톨레도(Toledo)의 상인들에게 돌시네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말하듯도 강요했다가 흠뻑 두들겨 맞고 길바닥에 내동댕이쳐 있는 것을 마을의 농부가 집으로 데려온다. 편력기사로써의 첫 번째 모험은 이렇게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끝난다.

한편 집에서는 돈키호테가 이렇게 미치게 된 것이 기사소설 때문이라 여기고 마을 신부

와 이발사, 조카딸은 서재에 있는 기사소설들을 ‘종교재판’하여 모조리 불태워 버린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는지, 정신이 든 돈키호테는 동네의 농부 산초 판사에게 섬의 총독 자리를 약속하고 자신과 같이 가자고 설득하여 그를 시종으로 데리고 다시 두 번째 모험을 떠난다. 길을 가다가 풍차를 발견하고 그것이 기사소설에 등장하는 거인이라고 생각해 달려들다가 상체만 입고 나뭇그리지는 수난을 당하며, 수도사들과 같이 길을 가는 비스카야 사람들에게 덥벼들어 잡혀가던 공주(사실은 비스카야인 부인)를 구한다고 그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모두 2권으로 된 소설 『돈키호테』는 이런 식으로 돈키호테와 산초가 벌이는 황당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모험으로 가득 차 있다. 왜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필요했을까? 돈키호테가 벌이는 행위는 앞 시대에 유행했던 기사소설의 방식이다. 800년 가까이 스페인을 지배했던 아랍세력을 1492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 ‘국토회복(Reconquista)’을 종결시키고, 프랑스에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탈리아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를 삼아 그들의 금은보화로 스페인의 막대한 부를 이루게 한 근대정신 혹은 기사도 정신이 추앙되고 영웅시 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를 이상화한 작품들이 바로 기사소설이다.

그런데 책이 나온 17세기 초에는 그런 스페인의 영광이 여지없이 몰락하던 때였다. 그래서 몰락한 시골귀족인 돈키호테를 내세워 스페인의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장르인 기사소설을 가짜와 이를 비틀어 당대를 풍자한 것이다.

『미쳐서 살고, 제 정신이 들어 죽었다』

흔히 돈키호테는 이상주의를 신봉하고, 산초는 현실주의를 대변한다고 한다. 돈키호테가 신봉하고자 하는 이상주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돈키호테가 바라는 것은 바로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편력기사로써의 임무이며, 아마디스는 그 매개에 불과하다. 이 욕망을 향해 돈키호테는 질주했던 것이다. 그 욕망이 너무 강력해서 광기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물론 편력기사는 존재성과 임무가 그 시대와 어울리지 않기에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욕망의 본질만은 분명 틀리지 않았다.

돈키호테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편력기사의 명분에 집착했다면 산초 역시 그럴 듯한 벼슬을 욕망하고 있었다. 그것이 돈키호테에게는 아마디스로 산초에게는 섬의 총독으로 매개된 것이다. 실제로 2권에서 『돈키호테』의 열렬한 독자인 공작부부에 의해 돈키호테와 시종 산초를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도 마련되어 놀랍게도(!) 돈키호테는 편력기사로써, 산초는 공작의 영지인 섬의 총독



으로서 훌륭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편력기사로써 들관과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모험을 할 때는 멀쩡하다가 그 꿈이 깨지고 제정신이 돌아오니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하얀 달의 기사’(사실은 카리스코가 변장한)와의 결투에 패함으로써 편력기사로써 수행할 모든 임무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들고 우울증에 빠져 결국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산초 카리스코 학사가 쓴 묘비명에는 “미쳐서 살고, 제정신이 들어 죽었다.” 한다.

돈키호테는 모험을 하면서 늘 “마법사들이 나의 행운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용기와 정신만은 빼앗지 못할” 거라고 외치곤 했다. 이 불굴의 의지와 용기가 바로 그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었다. 실상 편력기사는 허황된 꿈이고 이를 추구하는 것은 미친 짓이지만, 그런 행위는 돈키호테의 환상 속에서 실재가 되고 이를 통해 의심할 나위 없는 존재감을 갖게 됐던 것이다. 돈키호테는 걸음으로 미쳤지만 사실은 미치지 않았고, 그의 열정과 광기는 바로 자유와 용기, 그리고 꿈을 실현하는 외피였던 셈이다. 꿈이 없다면 우리네 삶은 얼마나 황폐하겠는가!

서울지역종친회 사적지 참배

회원 여러분!

총장공 권을 도원수 제433주년 행주대첩 기념행사가 거행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 시 :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10시
-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총장사
- ♣ 교 통 : 경의 중앙선 능곡역 광장 08:30

♣연락처:

-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6년 3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59차 정기산행 및 시산제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59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6년 3월 15일(일) 11시(시간 엄수)
- ♣ 집합장소 : 1, 7호선 도봉산역 1번 출구
- ♣ 시 산 제 : 도봉산 호프
- ♣ 준 비 물 : 개인 필요장비

- 회 장 권정찬: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혁규: 010-2240-4242

2026년 3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